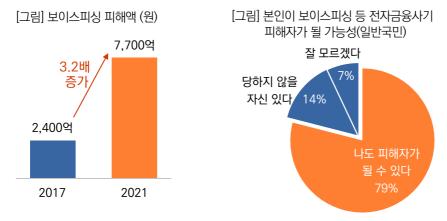


보이스피싱 피해액.

5년 새 2,400억 원→ 7,700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상승!

- ▶ 최근 발표된 KBS와 공영미디어연구소 조사팀의 '보이스피싱 조사' 결과에 따르면,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2년 피해액 7,70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2,400억 원 대비 3.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보이스 피싱 관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, 10명 중 8명(79%)은 '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'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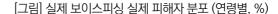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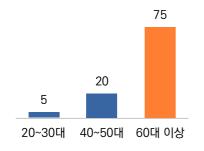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KBS뉴스, '보이스피싱, 정말 안 당할 자신 있나요?' 기사 참조, 2022.09.04.(KBS 공영 미디어연구소 조사팀,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,004명, 인터넷 조사, 2022.08.29.~8.30) (https://mn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554874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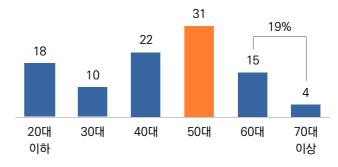
◎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?'60대 이상 노인'보다 40~50대 중년층이 더 많아!

- ▶ 보이스피싱 등의 주요 피해자가 누구일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%가 '60대 이상 노인'을 꼽았다.
- ▶ 하지만 지난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'50대'가 31%로 가장 많았고, '40대'와 '20대 이하' 가 각각 22%, 18%로 그 뒤를 이었다.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 이상(53%)이 4050인 점이 주목된다. 반면 60대 이상 노인의 실제 피해율은 19%에 불과해, 노년층보다 40~50대 중년층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.









*자료 출처 : KBS뉴스, '보이스피싱, 정말 안 당할 자신 있나요?' 기사 참조, 2022.09.04.(KBS 공영 미디어연구소 조사팀,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,004명, 인터넷 조사, 2022.08.29.~8.30) (https://mn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5548745)